20년간 7명 숨져…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 어쩌나

안전대책 보강 불구 또 추락사고
올해만 벌써 2명 사망…시민 외면
회전하는 원통형 난간 효과 없어
남구, 추락방지망 설치 적극 대처
"좋은 문구 등 심리적 안정 제공을"

23일 찾은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 한 시민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산과 산 사이를 이어 만든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잇따라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여 년만에 무려 7명이 숨졌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안전대책을 수립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이곳에서 추락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죽음의 다리'라는 불명예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오전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 1999년 도로 개설로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기 위해 산과 산 사이에 설치된 보행 전용 교량이다. 인근 주민들이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 코스로 자주 찾는 장소지만, 추락 사고가 해마다 이어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찾은 다리 곳곳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 보였다.

다리에서는 회전하는 원통형 난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 난간은 사람이 손을 잡고 올라가려고 할 때 미끄러지게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바람에 날아온 나무 송진 가루들이 켜켜이 쌓여 제대로 회전하지 않았다.

등산하던 이홍도(65)씨는 "회전하는 난간이 오히려 돌아가서 몸을 더 잘 넘어가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계속 안전대책을 보강한다는 소식을 듣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사고 예방 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석(59)씨는 "자주 등산하러 오는 곳이 자살 명소로 불려 정말 안타깝다. 난간도 높이고 원통형으로 회전이 되도록 바꿨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효과적인 대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곳 다리 관리 책임기관인 남구는 지난 2020년 4월 재난특별교부세 1억원을 투입해 난간의 높이를 1.2m에서 2m로 0.8m 올렸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다리의 가장 끝 난간은 회전이 되는 원통형으로 교체했으나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총 5번의 유사사고가 반복되면서 해당 시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시설물을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고 설명하지만, 추락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4시 55분께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래로 뛰어내려 큰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21일에도 30대 남성 B씨가 다리 아래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2월9일에도 40대 남성 C씨가 투신해 숨졌다.

남구는 잇따르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석산 구름다리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 사업' 시행에 적극 나섰다. 와이어망 설치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남구는 구름다리와 도로 사이 공중에 상단 1322㎡, 하단 548㎡ 규모의 와이어 추락방지망을 설치한다. 이 와이어 망은 골프장 등지에서 활용되는 구조물로, 100㎏의 충격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마철을 고려해서 와이어망 설치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장마기간에 섣불리 공사를 진행했다가 와이어망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시기를 늦추고 있다. 와이어 또한 규모가 워낙 커 제작에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와이어망 외에 CCTV 설치도 계획 중이며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생태터널로 복원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다각도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시설 보강 이외에 심리적 위안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주민은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말리기 위한 생명의 전화 설치나, 좋은 문구 등을 기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어지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전남 교원들, 독도서 독립의 역사·義 정신 되새기다

3박 4일간 울릉도·독도 탐방
영토주권 교육 내실화 모색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교원의 역사·영토주권 교육 역량을 키우는 '나라사랑 독도 탐방 연수'를 운영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탐방단은 독도에 입도해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발굴하며 의미 있는 여정을 이어갔다.

이번 연수에는 전남역사탐구대회 수상 지도교사, 일반 교원, 전남 의(義) 교육자료 개발위원 등 총 26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걸으며, 살아 있는 역사교육과 영토주권 의식을 마음에 새겼다.

탐방단은 울릉도에 도착한 뒤 독도박물관, 태하향목모노레일, 테마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울릉도의 자연과 문화를 탐방했다. 단순한 견학을 넘어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연수로서 깊이를 더했다.

특히 19일 오전에는 파도와 날씨, 시운(時運)이라는 '3대 덕'이 모두 맞아떨어지며 독도 입도에 성공했다.

독도 입도 직후 "3대 덕을 쌓았다! 독도 입도 성공!!!", "장하다. 잘했다. 행운이다"라는 메시지가 단체 채팅방을 가득 메웠고, 참가자들은 모두 독도에 발을 디딘 벅찬 감동을 나누었다.

이날 오후 교사들은 108계단을 오르고, 독도수비대기념관과 대풍감 해양생태관 등을 관람하면서 독도의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저녁에는 전문가 특강과 교사 간 공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번 연수가 단지 '보고 오는 체험'이 아니라 교육 실천의 출발점임을 되새기며, 수업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함께 고민했다.

이번 탐방에 참여한 전남 의(義) 교육자료 개발위원들은 '의(義)로움'과 '나라사랑'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풀어낼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울릉도와 독도는 역사와 영토의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교육 현장"이라며 "이번 탐방을 계기로 교사들이 민주시민 교육과 영토주권 교육을 한층 더 생동감 있게 전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 교사 10명 중 6명 "정당 가입 의사"

광주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당직·출마 희망도 20% 달해
68% "민주당에 가입하겠다"

광주지역 교사 10명 중 6명이 정당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 19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593명, 응답률 30%) 결과, 응답자의 65%가 '교원에게 정당 가입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가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35%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당 가입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 384명 중 80.5%인 309명은 '당비만 내겠다'는 소극적 참여 의사를 보인 반면, '당직을 맡겠다'거나 '공직 출마를 희망한다'는 적극적 참여 응답도 20%를 차지했다.

정당 선택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조국혁신당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교사들의 높은 정당 가입 의향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기본권 미보장에 대한 보상 심리 △정권 교체 상황 속 고양된 정치의식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속에서의 정치적 발언 통로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광주교사노조 측은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일회성 여론이 아니라, 교직 사회 내 정치기본권 요구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타 시·도 및 교장·교감 등 관리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대상의 유사 설문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전문건설협회와 '기술인재' 키운다

현장 실습·멘토링 등 업무협약
'꿈 실현금' 3200만원 기탁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지난 20일 전라남도교육청 5층 상황실에서 전남 지역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꿈 실현금' 대상자 선발 및 기업 연계 △전남 지역 4차 산업 및 전문건설 분야 기술 인재 발굴 및 육성 △학생 진로 설계와 연계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성과 공유 및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 지역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꿈 실현금'으로,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본부 1000만원, 소속 22개 회원사 2200만원 등 총 3200만원이 재단에 전달됐다.

기탁금은 전남 지역 중·고등학생 중 4차 산업 및 전문건설 분야에 관심 있는 22명을 선발해 '1시군 1기업 1학생'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선발 학생들에게는 현장 실습과 진로 멘토링 등 실무 중심 교육이 함께 제공돼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회가 마련된다.

이날 행사에는 도교육청과 재단, 협회 관계자 및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기술기반 진로교육 협력 체계 구축과 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성진 협회장은 "지역 기업들이 미래 인재 양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대중 도교육감도 "전남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역 산업과 연결된 실질적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은 향후 도내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 동구, 보행자 사고 구간 '보행 안전 현수막 게시대'

전대병원·충장로1가 입구 등 6개소

광주광역시 동구가 무단횡단 사고 다발 횡단 보도와 교차로 인근에 방호울타리 역할을 하는 보행 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눈길을 끈다.

광주 동구는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인근 6곳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 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게시대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호 울타리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 공간으로 활용돼 불법 현수막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광고 현수막 부착을 통해 지역 광고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는 동부경찰서와 협의해 유동 인구가 많은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충장로 1가 입구 △충장로 NC 웨이브 앞 △광주고등학교 정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산유원지 등 6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총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했다.

임택 광주 구청장은 "앞으로도 걷기 좋은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